

## HEADLINE NEWS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차세대 육성지원 행동계획’ 수립·추진 (오사카)

최근 일본에서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의식 변화로 인해 일본 전국적으로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2003년 ‘차세대 육성 지원대책 추진법’을 제정하였고, 모든 자치단체가 2005년 3월 말까지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오사카市도 행동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위원 등으로 구성된 「행동계획 책정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행동계획의 기본 목표는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개성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출산하고 보육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 및 경제 제반 환경 정비에 매진하는 데 있다.

([www.city.osaka.jp/media/shisei/2005\\_4/month/index.htm](http://www.city.osaka.jp/media/shisei/2005_4/month/index.htm))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런던의 경관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런던)
- ② 30년 후의 요코하마市 장래상을 그릴 장기비전 수립 (요코하마)
- ③ 토론토市の 건축 및 디자인 축제 (토론토)

### 도시환경

- ④ 어린이들을 위한 야외 자연학습센터 조성 (아이다호州 보이즈市)
- ⑤ 미네아폴리스-세인트 폴 대도시권지역 공원정책계획 발표 (미네소타州: 미네아폴리스)
- ⑥ 빈곤층 밀집지역의 산업체 오염물질 저감 대책 추진 (앨라배마州)

### 도시교통

- ⑦ 승무원 없는 자동화 지하철 도입 (뉴욕)
- ⑧ 나홀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다인승 전용차로 이용 허용 법안 추진 (캘리포니아州)
- ⑨ 재택근무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교통수요 감소 효과 발생 (로스앤젤레스)

### 사회복지·문화

- ⑩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심 순찰차’ 도입 (오사카)
- ⑪ 매력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관광 홈페이지에 소개 동경

### 행·재정

- ⑫ 외식요리 영양성분 표시 가이드북 발행 (동경)
- ⑬ 요코하마 국제종합경기장을 닛산 스타디움으로 명칭 변경 (요코하마)

### ① 런던의 경관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런던)

영국 런던의 주요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로, 런던시장이 2005년 4월에 어떻게 경관이 보호되어야 하고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담은 SPG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 초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 지침은 도시계획가들에게 런던에서의 고층빌딩 건설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침서의 내용에는 전략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경관을 지정했고, 이 경관을 ‘파노라마경관지역’, ‘수변경관지역’, ‘타운경관지역’, ‘선형경관지역’ 등 4가지로 분류했다. 런던시장은 이 지침서가 특히 런던의 랜드마크 고층빌딩 건설과 고층빌딩이 런던에 주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lanning, 2005. 4. 22)

### ② 30년 후의 요코하마市 장래상을 그릴 장기비전 수립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市는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사회경제의 글로벌화, 가족구성의 다양화, 고용형태의 변화 등 커다란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생활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장기비전은 요코하마市의 장래상으로서 市전체 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침이다. 市는 장기비전을 약 30년 만에 수정하게 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코하마市의 바람직한 모습 등을 논의한 후 새로운 비전을 수립할 예정이다.

([www.city.yokohama.jp/me/shimin/kouhou/673/001-5.html](http://www.city.yokohama.jp/me/shimin/kouhou/673/001-5.html))

# 도시 관리/도시 환경

## ■ 세계도시동향 ■

### ③ 토론토市の 건축 및 디자인 축제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市는 市の 건축물을 홍보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 및 디자인 축제(Festival of Architecture and Design)를 열었다. 이 축제는 토론토市の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프로그램(Clean and Beautiful City Initiative)’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市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협회들과 건축 디자인 학교들도 참여했다. 5월 한 달 동안 지속된 이 축제는 토론토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市の 다양한 건축물들을 홍보했으며, 전시회, 건축물과 관련된 영상물 상영, 심포지엄, 강의, 현지답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Canada NewsWire Ltd., 2005. 4. 28, “May Miller kicks off month-long celebration of architecture and design”)

### ④ 어린이들을 위한 야외 자연학습센터 조성 (아이다호州: 보이즈市)

미국 아이다호(Idaho)州 보이즈(Boise)市는 ‘오픈스페이스 관리계획(2000 Foothills Open Space Management Plan)’에 따라 최근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습센터를 완성하였다. 자연학습센터는 실내·외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어린이들에게 보이즈市가 가진 고유한 자연환경과 역사, 자연보존활동, 市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그린건축 활동, 도시와 자연간의 상호 작용 등을 교육하게 된다. 市는 또한 7~9학년 어린이들을 위해 세 종류의 여름 캠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첫 번째 캠프는 전체적인 환경문제를 소개하며, 두 번째 캠프는 수질, 실개천 생태, 하수 및 오수 처리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며, 세 번째 캠프는 학생들에게 독성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해 교육하게 된다.

(Idaho Stateman, 2005. 4. 22, “Boise’s Foothills Learning Center Offers Unique Indoor-Outdoor Classes for Children”)

### 5] 미네아폴리스-세인트 폴 대도시권지역 공원정책계획 발표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세인트 폴(Minneapolis-St. Paul) 대도시권은 2030년 대도시권지역 공원정책계획(Regional Parks Policy Plan)을 발표하였다. 대도시권 위원회는 향후 25년 안에 7개 카운티 지역에 약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새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로 인한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공원정책계획을 통해 중요한 생태환경과 녹지를 보호할 방침이다. 대도시권 공원정책계획의 핵심은 3개의 대규모 공원을 새로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으로 기존 공원들과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된 대도시권지역 공원시스템은 47개 공원에 52,000에이커에 이를 예정이다. ([www.startribune.com/stories/561/5325737.html](http://www.startribune.com/stories/561/5325737.html))

### 6] 빈곤층 밀집지역의 산업체 오염물질 저감 대책 추진 (앨라배마주)

미국 앨라배마주 상원 에너지 및 자연자원위원회는 빈곤층 밀집지역의 산업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정의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산업단지나 공장을 개발할 때 근거리의 빈곤층 주거지역에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경우 개발이 허가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빈곤층 밀집지역을 가구소득이 연 15,000달러 이하의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정도가 동일한 카운티의 다른 지역보다 높을 경우 산업체들은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주는 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관리부에 환경정의 부서를 따로 신설한다.

(Birmingham News, 2005. 3. 17, "Environmental Justice Bill Would Require Alabama to Check Effects of Industry Pollutants on Neighbors Before Issuing New Permits")

### 7 승무원 없는 자동화 지하철 도입 (뉴욕)

미국 뉴욕시는 승무원 없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운행되는 지하철을 도입할 예정이다. 2005년 7월부터 운행되는 이 L-전철노선은, Canarsie와 14th Street at Eighth Avenue 사이를 운행하게 된다. 뉴욕 지하철 공사는 1996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승무원이 필요없는 자동화 전철시스템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모든 노선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런데, 비상사태 시 승무원이 없는 상황에서 우려되는 승객들의 안전문제와, 자동화로 인한 승무원들의 일자리 감소문제가 자동화 전철시스템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뉴욕 지하철공사는 현재 L-전철노선 자동화로 인한 안전문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이 노선에서 일해 온 150명의 승무원들을 다른 노선으로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The New York Sun, 2005. 3. 2, "computerized subway makes debut")

### 8 나홀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다인승 전용차로 이용 허용 법안 추진 (캘리포니아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휘발유 외에 전기를 연료원으로 하는 하이브리드(hybrid) 차량에 한해 1인 탑승일 경우라도 다인승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에게 혼잡시간대 통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하이브리드 차량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이루는 데 있다. 다인승 전용차로 이용이 허용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연료효율이 45mile/gallon 이상 되어야 하며, 州당국은 사전등록을 통해 최대 75,000대의 차량에 한해서만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는 과도한 나홀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인해 다인승 전용차로가 혼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현재 연방 관련법규에 의하면, 완전한 대체연료 차량에 한해서만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州에서는 자체적인 법안 마련을 통해 하이브리드 차량에까지 다인승전용차로 이용권한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www.msnbc.msn.com/id/6901192](http://www.msnbc.msn.com/id/6901192))

# 도시교통/사회복지·문화

## ■ 세계도시동향 ■

### 9 재택근무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교통수요 감소 효과 발생 (로스앤젤레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재택근무자 수가 몇 년 안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LA의 싱크탱크 연구소인 Reason Foundation의 보고서에 의하면, 1980년 이후 재택근무자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반면, 철도나 트랜짓의 이용자 수는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는 고속통신망의 보급과 저렴한 이동통신 장비로 인해 재택근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았고, 이로 인해 교통체증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조지 메이슨 대학이 워싱턴 D.C.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재택근무가 3% 증가할 때 교통체증은 10%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dailynews.com/Stories/0,1413,200~24781~2776453,00.html](http://www.dailynews.com/Stories/0,1413,200~24781~2776453,00.html))

### 4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심 순찰차' 도입 (오사카)

일본 오사카시에서는 최근 소매치기나 도로 위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살인이나 상해 등의 흉악범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02년 '오사카시 안전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로조명 정비와 지하철역 구내에서의 방범카메라 설치 등 범죄억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 일환으로 2005년 4월부터 지역 내에서 주행하는 오사카시의 업무용 작업차량 및 소방·구급차량 등에 '안심 순찰차'라고 명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내 각 지역에서 순찰을 개시했다. 이는 범죄억제를 목적으로 2004년 12월부터 통학로와 공원의 순찰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 순찰차'를 보다 충실하게 강화한 것이다.

([www.city.osaka.jp/media/shisei/2005\\_4/month/index.htm](http://www.city.osaka.jp/media/shisei/2005_4/month/index.htm))

# 사회복지·문화/행·재정

## ■ 세계도시동향 ■

### ④ 매력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관광 홈페이지에 소개 (동경)

일본 東京都는 동경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동경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생활을 지탱하는 교량, 도매시장, 하수처리시설 등을 훌륭한 관광명소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東京都가 관리하는 도시기반시설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일본 최초의 하수처리장, 동경 임해부 풍력발전소, 동경 최초의 댐 등을 '동경의 관광'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東京都의 도시기반시설 탐방 안내를 위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노선을 소개하며, 외국인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영어 등 외국어도 소개하고 있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5/04/20f453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5/04/20f45300.htm))

### ④ 입식요리 영양성분 표시 가이드북 발행 (동경)

일본 東京都에서는 건강 증진과 당뇨병을 비롯한 생활습관병의 예방을 위해 개인이 외식 시에 적절한 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음식점 요리의 칼로리, 지방, 당분 등의 정보 공개에 관한 都民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都에서는 영양성분표시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영양성분량의 산정과 표시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가이드북을 발행해 외식사업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 가이드북은 요리의 영양성분량을 외식사업자가 스스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과 산정한 것을 고객에게 보여주기 쉽게 표시하는 방법 및 표시 예를 소개하고 있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5/03/20f395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5/03/20f39500.htm))

### 요코하마 국제종합경기장을 ‘닛산 스타디움’ 으로 명칭 변경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 국제종합경기장은 2002년 FIFA 월드컵의 결승전이 벌어졌던 경기장이다. 요코하마市는 이 경기장을 앞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처음으로 Naming rights(시설명명권: 스포츠시설 등의 명칭에 스폰서 기업명과 브랜드명을 붙이는 권리)를 도입하여 시설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번에 시설명명권자로 결정된 곳은 닛산(日産) 자동차주식회사이며, 계약기간은 2005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5년이다. 계약금액은 1년간 4억 7,000만 엔(약 45억 원)으로 5년 동안 총 23억 5,000만 엔이 된다. 市에서는 이 수익을 경기장 등 3곳의 시설관리비의 일부로 활용하고, 경기장의 자립적인 경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www.city.yokohama.jp/me/shimin/kouhou/671/001-6.html](http://www.city.yokohama.jp/me/shimin/kouhou/671/001-6.html))